

취학 어린이 남녀 불균형 심화

90.2.8

여자가 8천명 적어...남아선호 부작용

자녀 수의 감소와 남아선호 현상에 따라 서울의 국민학교 취학 아동수는 해마다 줄고 있으나 여자에 대한 남자의 비율인 성비는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교위에 따르면 90학년도 국민학교 취학 아동수는 남자 9만8백17명, 여자 8만2천3백31명 등 모두 17만3천1백48명으로 지난해보다 아동수는 1만1천6백39명이 줄었으나 성비는 오히려 109.3에서 110.3으로 1정도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취학할 아동은 83년 3

월1일부터 84년 2월29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과 89학년도 취학 유예자 등 누락 아동으로 예비소집은 9일 오후 2시, 입학식은 3월5일 오전 11시 각 국민학교 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서울 시내 국민학교 취학아동수〉

학년도	남 자	여 자	총 계	성 비 (여자 100)
90	90,817	82,331	173,148	110.3
89	96,511	88,276	184,787	109.3
88	98,554	91,232	189,786	108.0
87	96,984	89,738	186,722	108.0

(단위 명)